

“산업화 시대…디자인이 경쟁력이다”

‘디자인이 경쟁력이다.’

산업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디자인은 기업 및 제품의 부가가치와 매출 향상, 해외 수출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열린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5관은 광주를 대표하는 디자인 제품과 일상의 디자인을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광주시 미래비전과 산업을 살펴볼 수 있는 장소로 글로벌 비즈니스 도약을 꿈꾸는 광주 기업들의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만날 수 있었던 전시관에서는 광주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 결과물도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디자인비엔날레의 한 축인 ‘지역 디자인 산업화’에 방점을 찍은 기획이다.

(재)광주디자인센터가 주관하고 광주시가 지원하는 ‘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는 혁신적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및 양산, 수출지원, 마케팅을 일괄 지원함으로써 지역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여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기업들의 매출 향상과 해외 진출 역량 강화, 수출 확대 교두보 확보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진행된 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의 결과 지역 기업의 디자인 상품, 디자인 개발 역량 이 해외 시장에서 호평 받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고 있다. 특히 이 프로젝트 결과물은 디자인 비엔날레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어 의미가 있다.

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 참여 기업은 지금까지 60개 기업, 90여개 제품에 이른다. 올해 열렸던 비엔날레에는 사무용의자 생산업체인 유한회사 에니체, 손소독기 ‘벨라투스’ 생산업체 (주) 링크 옵티스, 온열기 ‘바디바’ 제작업체 (주)명신 메디칼 등 20개 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을 선보였다.

2019년 산업화프로젝트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 올해는 (주)에스엠뿌레(대표 홍기술)의 ‘작용 타입의 무선 초미립자 분사기’, (주)신성화학(대표 홍범기)의 ‘소형건조기’ 등 스마트가전, 에어가전, 뷰티 등 광주 지역 주요 산업 분야에 걸



1 광주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는 지역 기업 제품의 해외 수출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 디자인비엔날레 기간 중 열린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모습. 2 ‘작용 타입의 무선 초미립자 분사기’. 3 ‘드림 씨엔지’

광주디자인센터 ‘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

5년간 60여 지역기업·90여개 제품 지원

올해 310억 수출 성과·비엔날레 전시도

처 지역중소 기업 6개 업체에 제품 디자인개발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했다. 또 디자인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디자인의 상품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4건의 시제품 제작을 마쳤다.

2017년부터 시작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지역 기업 제품의 해외 수출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 눈길을 끈다. 올해 디자인비엔날레 기간 중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상담회에는 지역 기업 56개사와 미국, 스페인, 중국, 우크라이나 등 해외바이어 50여명이 참여, 성황을 이뤘다. 참가자들은 일대일 상담 지원을 받아 150여건, 8620만달러 규모의 상담을 진행했고 총 29건 계약과 MOU를 통해 약 2586만 달러(한화 약 310억원)계약 성과를 거뒀다. 이는 2017년 (재)광주디자인센터에서 처음 시행한 수출상담회 계약금액 258만달러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위성호 광주디자인센터 원장은 “디자인센터는 지속적으로 지역기업의 해외판로를 개척하고 해외기업의 투자유치를 확보하는 등 지역기업의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와 수출 확대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광주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는 지역디자인산업 육성은 물론 시장경쟁력 향상에 따른 매출과 고용 증대 등 중소제조업체의 동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스토리 콘서트 책과 마이크’

광주학 출판기념 북콘서트…18일 아트스페이스

광주학 도서 출판기념 북콘서트의 대담회가 열린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윤기)은 오는 18일 오후 4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대강당에서 광주 관련 도서 3종을 소개하는 ‘스토리 콘서트 책과 마이크’를 진행한다.

올해는 광주학 총서인 ‘근현대 광주 미술의 주요 지점들’ 이외에도 광주에 대한 기억과 문화사적 고찰이 어우러진 에세이집 ‘광주모노그래프 ‘길’’, 광주학 연구소모임 결과물인 ‘광주의 지문’을 새롭게 선보인다.

먼저 광주학 총서 10권 ‘근현대 광주 미술의 주요 지점들’은 일제강점기를 비롯 한국전쟁기, 앵포르멜 운동, 5월 미증미술,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와 미디어아트까지 광주 미술사 연구서를 한 권으로 묶었다. 조인호 광주미술문화연구소 대표가 편집자로 참여했다.

일제강점기는 이선옥과 오병희, 해방 이후 광주화단 연구 등은 장석원·김병현·홍윤리, 추상과 해체추상 및 광주비엔날레는 조인호, 오월 미술은 배종민이 맡았다. 또 이선옥의 1990년대 수묵화 관련 연구에 이어 백종욱의 ‘예술의 일상성과 자생성’, 오병희의 미디어아트 창도시세에 관한 연구가 담겨있다.

에세이집 ‘광주모노그래프 ‘길’’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광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있다. 소설가 장은진이 기억하는 송정리, 김형중 평론가의 양림·사직동, 문화연구자 김만석이 재구성한 일제 강점기 수기유적에 대한 글도 있다. 또 문학박사 정명중이 그린 서석동 동네가 시장, 김상철 문화연구자가 쓴 중흥동 재개발 지역, 방송작가 최경지가 안내하는 동명동 산책까지 다채로운 글을 만날 수 있다.

올해 ‘광주학 연구소모임’의 연구 활동 결과물이 담긴 책도 함께 소개된다. ‘작은 연구 큰 이야기’라는 뜻의 ‘소탐대담(小探大談)’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소모임들의 활동 결과가 ‘광주의 지문’으로 엮였다. 참여한 소모임은 전문가팀인 ‘광주시간여행’(연구책임 박준수)과 ‘담다’(연구책임 조정순), 그리고 일반인 팀 ‘아빠 그라제’(한민아)와 ‘동박에 마실길’(김용민) 등이다.

‘스토리 콘서트 책과 마이크’ 1부에서는 ‘지역성과 문화의 결합, 그리고 확장’이라는 주제로 오선영 큐레이터와 안디 아크디안(인도네시아)의 대담이 펼쳐진다. 안디 아크디안은 인도네시아 국립대학 사회학과 교수이자 오마 무니르 인권박물관 큐레이터 겸 감독이다. 김진아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진행으로 지역성과 문화를 결합한 인도네시아 사례에 대해 이야기한다.

피아니스트 이승규와 플루티스트 나리가 협연하는 축하공연도 준비돼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선착순 100명에게 1인 1세트씩 출판 도서 3가지를 선물로 제공할 예정이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브레드 이발소’

대한민국 콘텐츠 문체부장관상

지역 애니메이션제작사의 작품이 ‘2019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탁용석)이 우리 지역 애니메이션 제작사 ㈜문스터스튜디오(총감독 정지환)의 ‘브레이브발소’가 지난 11일 ‘2019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애니메이션부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브레이브발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기획장작 스튜디오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을 시작 ‘CG활용프로젝트 제작지원사업’과 ‘대교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투자조합 펀드’를 통해 TV시리즈로 완성된 작품이다.

올해 초 KBS1 방영(시청 점유율 16.4%, 1위 기록)을 시작한 ‘브레이브발소’는 현재 지상파와 케이블 애니메이션 시청률 1위, 지난 6월 유튜브 구독자 10만을 돌파하고, 최근 90만 뷰를 기록하며 온라인에서도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브레이브발소’는 앞으로 시즌2도 제작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무척이나 귀했던… ‘나에게 바나나가 온다’

박희정 첫 개인전, 31일까지 갤러리 관선재

전시장에 들어서면 FRP 노란 바나나 조형물 두 작품이 눈에 띈다. 바나나 위에서 스트레칭하는 여성의 모습도 보인다. 몸이 아픈 적이 있었던 박희정 작가는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고, 특히 단단한 기운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스트레칭’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작품 소재로 삼았다.

조각과 회화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 박희정 작가가 조각을 시작한 지 28년 만에 첫 개인전을 열고 있다. 긴 시간 동안 한 차례도 손에서 흙을 놓아본 적이 없고 조형물 작업이나 그룹전에 참여한 적은 있지만 ‘온전하’ 자신만의 작품으로 전시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에 새롭게 개관한 관선재(공동 61의 2)에서 열리는 전시는 당초 23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으나 호응이 이어져 오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전시 주제는 ‘나에게 바나나가 온다’로, 회화와 조각 30여점 대부분에 바나나가 등장한다. 희망을 상징하는, 따뜻한 느낌의 노란색을 줄곧 작품에 써왔던 박 작가는 올해부터 ‘바나나’를 소재로 본격적인 작업을 진행했다. 바나나가 귀했던 시절, 아껴가며 바나나를 먹을 때면 ‘달달한 맛’에 행복감이 절로 밀려왔고 위로가 됐고 그 감정을 작품을 통해 표현했다.

조각 작품은 브론즈, 고형석, 황등석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평면 작품은 다채로운 색을 사용한 초현실적이면서도 자유분방한 붓질이 인상적이다. ‘관계’ 시리즈는 사람과 사람, 동물, 자연과의 만남 등 한번 맺은 인연에 대한 소중함을 담은 작품이며 뛰어난 상상력의 소유자인 베르나르 베르베르에게

서 영감을 받은 그림도 전시중이다.

박 작가는 “바나나는 한 개일 때, 다발로 놓여있을 때, 얹어 놓을 때 등 다양한 조형형태로 무한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소재고 스테인레스 등 재료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당분간 바나나 작업에 매진해 좀 더 개성있는 작품을 선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전남대 예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한 박 작가는 광주시미술대전 등에서 수상했으며 현재 전남조각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조형물과 어린이 놀이터용 장비를 제조하는 ㈜편의 대표로, 조형물과 초상조각을 제작했다.

/김미은 기자 mekim@



을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행사**는

벤틀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송년행사" 및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프로야구단지정숙소

KBO LEAGUE

승무원지정숙소

KOREAN AIR

승무원지정숙소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지정숙소

t'way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